

일본 대학교육의 개혁 동향: 학부교육을 중심으로

현 경 석 | 한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세계적으로 국가 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등교육의 개혁은 그동안 양적 시대에서 성장해온 20세기에서 질적 시대로 전환되는 21세기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공통점이 있다고 하겠다.

일본도 21세기로 진입하면서 고등교육 진학률이 50%를 넘어서 소위 포스트 대중화에 대비한 대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출발은 특히 1991년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에 의해 대학의 자유재량이 확대되면서 교육, 연구, 관리운영, 사회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의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아가 21세기를 목전에 둔 1998년 문부과학성의 자문기구인 대학심의회(2002년 12월 이후에 중앙교육심의회로 통합)는 '21세기의 대학상과 앞으로의 개혁방안에 관하여- 경쟁적 환경 속에서 개성이 빛나는 대학'이라는 답신을 통하여 21세기의 대학상과 대학의 개성(특성)화를 지향하는 개혁방안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 중앙교육심의회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장래상'이라는 답신보고서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전체적인 전망과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청사진과 더불어 대학과 정부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혁의 배경과 대학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학부교육의 재구조화 중 교양교육의 개혁과 변화사례, 그리고 문부과학성에서 대학개혁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재정(경쟁적 자금)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I. 일본 대학교육개혁의 배경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일본 대학개혁의 결정적 출발점이자 전환점은 1991년에 개정된 대학설치기준이라 할 수 있다. 소위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라 불리는 이 개정은 대학관련 기준의 간소화와 탄력화를 지향하였다. 그 기본취지는 개개의 대학이 그 교육이념과 목적에 기초하여 학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요청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특색 있는 교육연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와 제도의 탄력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평생학습의 관점에 입각하여 대학에서 평생학습 기회 다양화를 도모하며 아울러 대학의 수준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자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었다(유용식, 2002). 따라서 대학이 자율적인 책임화에 개혁을 추진해가는 새로운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자기점검 및 평가(자체평가) ② 교육상의 조직 ③ 교원조직 ④ 교육과정 ⑤ 대학의 개방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중 대강화와 관련하여 가장 큰 비중과 변화를 가져온 것은 교육과정에 관한 것으로 교양과 전공과목의 구분을 폐지하고 구성방식의 변화(필수, 선택, 자유과목 등), 그리고 이수시기의 탄력화(1,2학년 위주에서 4개 학년에 걸쳐) 등으로 특히 교양과목에 있어서 지금까지 획일적인 인문·사회·자연의 학문계열로 이루어졌던 것을 주제별(인간, 환경, 정보 등)로 재편성하고 학점이수 요건도 완화시켰다. 따라서 교양교육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로는 1998년 ‘21세기의 대학상과 앞으로의 개혁방안’이라는 답신을 통하여 학부(학사과정)의 방향과 교육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학부(학사과정)에 대해서는, 21세기 사회적 상황 등에 부응하면서 각 대학의 이념, 목표, 전공분야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후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생각하고, 유연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폭넓고 깊은 교양, 높은 윤리관, 실천적 어학능력, 정보활용능력의 육성과 함께 전공교육의 기초·기본 등을 중시하는 등의 방향에서 학부의 교육기능을 조직적·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일이 필요

하다. 나아가 학생의 다양한 능력, 적성이나 학습의욕에 유연하게 대응해가기 위한 학부, 학과를 넘어선 공동수업의 개설이나 전학(편입), 전부(전과)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학생의 선택의 폭이나 유동성을 확대하는 공부도 중요하다”고 하였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부(학사과정)교육의 목적을 다음의 3가지 항목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1) 과제탐구능력의 육성

주체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 자신들의 장래과제를 탐구하고, 그 과제에 대해 폭넓은 시야에서 유연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육성한다.

2) 교양교육의 이념, 목표

학문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나 자주적·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하게 판단하는 능력,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고 자신의 지식이나 인생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운다.

3)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적 연대

전공교육에 있어서도 교양교육의 이념,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을 전개한다. 전공분야의 기초·기본을 중시하고 전문적 소양이 있는 인재로써 기초적 능력을 배양한다(전문성의 가일층 향상은 대학원에서 행한다).

그리고 교양교육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과 기능
외국어에 의한 문장작성·토론·프레젠테이션, 정보활용능력, 수량적·과학적 사고법, 전공 기초교육, 심신건강교육.
-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제 과제에 대하여

테마(주제)별 강의·세미나(예를 들면 '환경문제와 사회', '현대사회와 법', '지구환경과 생물').

- 체계화된 학문을 폭넓게 경험한다. 전공하는 학문분야의 상이함을 넘어서 공통으로 필요한 복합적 관점이나 인간성을 함양한다.
- 전공교육에 있어서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폭넓은 시야에 입각하여 협동적으로 몰두하는 힘을 기른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학부(학사과정)의 내용구성

| 학부(학사과정) | |
|----------|------------------------------------|
| 공통기초교육 | 외국어를 통한 논술훈련, 정보활용능력, 보건의체육 |
| 교양교육 | 전공기초, 수량적·과학적 사고법, 현대사회의 과제 과목 |
| 전공교육 | 전공적 소양(기초, 골격, 타분야 관련), 전공과 교양의 종합 |

한편 2005년 제시된 중앙교육심의회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장래상'이라는 답신에서 학사과정의 다양성과 교양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학사과정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사회가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를 이루는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폭넓은 시야로부터 사물을 파악해 높은 윤리성을 보장받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한층 더 기대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나 '전공교육' 등의 바람직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

구축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충실한 학사과정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

- 2) 학사과정 단계의 교육에는 '교양교육'이나 '전공기초교육' 등의 역할이 기대되는 한편, 직업교육지향도 꽤 강하다. 따라서 향후의 학사과정교육은 '21세기형 시민'의 육성·충실화를 공통의 목표로 염두에 두면서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여러 가지 개성·특색을 유지하면서 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사과정 단계에서는 교양교육과 전공기초교육을 중심으로 주전공·부전공의 편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전공교육은 석사·박사과정이나 전문직 학위과정의 단계에서 완성시키는 것('종합적 교양교육형')이나,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 단계에서 전공교육을 완성시키는 것(말하자면 '전공교육 완성형') 등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전개하는 것이 기대된다.

- 3) 대학(학사과정 단계)에의 진학률 상승이나 고등학교교육의 다양화 등에 수반하여 입학자의 능력·적성이나 지향도 다양화되고 있는 것 또한 전통적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인 학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 등을 근거로 하여 학사과정·단기대학과정 등의 대학교육은 전체적으로 한층 더 다양성을 확보해 누구나가 접근하기 쉬운 고등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교양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1)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교양교육'은 학생에게, 국제화나 과학기술의 진전 등 사

회의 격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지(知)의 기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각 대학은 이과·문과, 인문·사회·자연이라고 하는 과거의 일반교육과 같은 종래 종적관계의 학문분야에 의한 지식전달형 교육이나 단순한 입문교육이 아니라, 전공분야의 테두리를 넘어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지식이나 사고법 등 지적인 기법의 획득이나, 인간으로서 본연의 자세나 삶의 방법에 관한 깊은 통찰,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힘의 함양에 노력하는 것이 기대된다.

- 2)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교양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에게는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나아가 교원은 교육의 프로로서의 자각을 가져 끊임없이 수업내용이나 교육방법의 개선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입문 단계의 학생에게도 고도의 지식을 알기 쉽고 흥미로운 형태로 제공하거나 학문을 추구하는 자세나 삶의 방식을 말하거나 하는 등 학생이 배우는 의욕이나 목적의식을 자극하는 일도 추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와 대학심의회, 그리고 중앙교육심의회와 답신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고등교육환경에서 대학의 책무성과 더불어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전반적 개혁배경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 교양교육의 개혁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대학 교양교육의 개혁사례

일본의 대학 학사과정은 소위 신제대학(1945~)체제가 도입되면서 과거 독일형의

전문주의적(전공 중심) 교육과정에서 새로운 미국형의 일반(교양)교육과정이 접목되어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1991)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전기(1~2학년)의 일반교육과 후기(3~4학년)의 전공교육으로 분리되어 연속성 없는 교육과정이 지속되어 왔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강화 조치 이후에 교양교육은 새롭게 전공기초를 다질 수 있고 교양과 전공이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교양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국립의 도쿄대학과 사립의 국제기독교대학(ICU)의 사례를 통하여 대학의 학사과정교육을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의 교양교육의 개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有本章, 2003).

1. 도쿄대학

1991년의 대학설치기준 대강화 이후, 교육과정개혁의 흐름 속에서 도쿄대학에서도 교육과정개혁이 진행되었다. 한편 교육과정을 검토하는 각종 위원회가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아울러 대학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의 재검토나 개혁에 조직적인 대처를 지속하고 있다. 교육과정개혁은 늘 진행 중이고 끝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쿄대학의 교육개혁 전체 모습을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학적(대학전체차원)인 교육과정개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10개 학부, 13개 연구과, 1개 학문간 협동(interdisciplinary)정보학부라고 하는 거대한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학부학생 수 14,600명, 대학원학생 수 14,171명, 교원 수 7,318명(2006년 기준)이라는 도쿄대학의 큰 규모 때문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다 큰 이유는 도쿄대학의 교육과정개혁이 합의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데 있다. 이것은 도쿄대학만이 아닌, 일본대학의 학부자율성이 강하다는 것에 바탕이 되어 있지만, 더욱이 도쿄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대학과 다른 3층 구조(1·2학년의 전기와 3·4학년의 후기, 그리고 대학원)와 진학분배(전공학과 배정)라고 하는 독특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보다 복잡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에 제출된 『국립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대처상황 - 현황 조사보고서』(2001)는 도쿄대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는 교육·연구에 첨단성만이 아닌,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일이 요구되고, 동시에 학술분야가 다양하지 않고 대학 전체가 거대화하여 흥고(本郷)와 코마바(駒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2개 캠퍼스 구성에서 2000년부터는 새로운 카시와(柏) 캠퍼스를 더해 제3캠퍼스 구성을 취하도록 했다. 학문(discipline), 종합영역의 학문(trans-discipline)을 특색으로 하는 흥고(本郷)와 카시와(柏) 캠퍼스에 비해서 학문간 협동(interdisciplinary)를 특징으로 하는 코마바(駒場)캠퍼스는 구 제도인 제일고등학교의 전통을 이어, 리버럴아츠 교육정신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별학부의 교육과정개혁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쿄대학 전체로서의 3층 구조와 그 개혁, 또 특히 그것과 관련이 깊은 교양교육과 진학분배의 개혁을 중심으로 개요를 설명하고자 한다.

도쿄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전원은 원칙적으로 2년 간은 코마바(駒場)의 교양학부에서 전기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전기과

정의 교육은 교양교육으로서 교양학부가 책임을 갖고 실시한다. 이 점에서 교양부나 일반교육 담당부서를 폐지한 다른 많은 대학과는 다르다. 학생은 전기(前期)과정의 성적과 학생 희망에 따라 후기(後期)과정의 진학선(전공학과)이 결정된다.

후기과정에서는 각각의 학부에서 전공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도쿄대학의 독자성은 교양학부도 전공교육을 실시하는 후기과정의 학과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대학원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3층 구조는 교양학부의 전기과정과 후기과정 및 연구과의 코마바(駒場) 교육과정구조를 지향하는 경우와 보다 넓은 대학 전체의 전기과정, 후기과정, 연구과의 3층 교육과정구조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도쿄대학에서는 1993년에 실시된 전기과정의 교육과정개혁 이후, ‘리버럴아츠’ 교육을 확충·강화하고 첨단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국제성·학문간 협동성·종합성은 교양학부 전기과정뿐만 아니라 후기과정 연구과로 구성되는 3층 구조의 교육연구조직이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그 이념으로 실천해온 것이다. 이 개혁에 따라 후기과정과 대학원교육과 전기과정 교육, 즉 3층 구조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되었다. 개혁 후 교육과정은 현대사회와 더불어 ‘리버럴아츠’ 교육을 전개하기 위해 수업과목을 ‘기초과목’, ‘종합과목’, ‘주제과목’의 3종류로 크게 나누고 있다. ‘기초과목’ 중 ‘방법론기초’와 ‘기초연습’이 특히 특징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양학과에서는 1996년도에 새로운 학과 재편이 행해졌다. 종래의 교양학과는 초지역문화과학과, 지역문화연구학과, 광역과학과, 종합사회과학과로 재편되었다. 이중에 지역 문화과학과와 종합사회과학과는 원래 지역

연구나 상관사회과학, 국제관계론 등 학문간 협동(interdisciplinary)적 전통을 갖고 있다. 보다 종합영역의 학문(transdisciplinary)적 성격을 명칭에서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이 넓은 지역문화과학과, 문화인류학, 표상문화론, 비교일본문화론, 언어정보과학의 4가지 전공이다. 이러한 도쿄대학의 학문간 협동(interdisciplinary) 또는 종합영역의 학문(transdisciplinary)적 지향성은 학부교육만이 아닌 대학원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향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문의 융합을 추구하는 신영역 창설과학연구과와 학문간 협동 정보학부, 정보학환(學環, 배움의 순환을 구조적으로 짜넣은 학문간 협동조직)이다.

1991년의 대강화 이후의 교육개혁은 대학에 교육과정개혁만이 아닌 자기점검평가, 보고 등과 FD(Faculty Development), 더욱이 수업평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의 도입을 추구하였다. 우선 자기점검, 평가 및 외부평가에 대해서는 각 학부마다 적극적으로 실시된 많은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교양학부에 대하여는 1998년 전기과정교육에 대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를 행하고, 1993년도에 실시된 교육과정개혁을 총괄하고 있다.

또 대학 전체적인 자기점검평가에 따른 적절성 여부를 기술한 것이 “도쿄대학 현황과 과제” 보고서이고, 4년마다 3차보고서까지 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FD에 관해서는 대학 전체의 FD를 실시하는 체제는 없지만 각 부국에서 처리되고 있다. 특히 교양학부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도쿄대학 교양학부 코마바(駒場)의 각 년도판에 상세히 보고하였다. 또 FD에 대하여 교양학부에서는 “도쿄대학 전기과정교육의 이념과 실천”(2001)을 작성하고, 교육이념의 철저함과 개개 수업의 교수법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학생에 의한 수

업평가에 관해서는 일부의 학부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지만, 동 간담회보고서에서 강하게 실시를 권고하고 있고, 2003년부터는 전학부에서 도입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에서 도쿄대학은 끊임없는 개혁을 지속해오고 있고, 교양학부의 특성을 살리면서 전공과정과 대학원과의 연계에 노력을 경주해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과의 장벽이나 폐쇄성을 극복하고, 학문간 협동과 융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2. 국제기독교대학(ICU)

ICU 교양학부는 일본에서 유일한 본격적 교양 중심(liberal arts)형이다. 그러나 완전한 미국형은 아니다. 즉 일본적인 수정이 가해져 있다. 그 첫 번째는 복수전공분야에서 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ICU의 학과 구조는 다른 일본대학과는 다르다. ICU에서는 몇 개의 (유사)전공분야에서 학과를 구성하고 있다. 일본의 전공학부에서는 각각의 전공분야가 학과로 되어 있다. ICU 학과의 기원은 인문, 사회, 자연이라는 일반(교양)교육의 교원조직이다. ICU의 설립취지에 ICU의 목적은 일반(교양)교육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교육의 3개 계열에 대응한 교원조직이 구성되고, 그것들이 교육조직으로도 되었다. 설립시에 문부성이 학과에 없는 학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 원인이 되어 이런 조직 구성을 하였다. ICU 교양학부의 기본구조는 전통적인 전공분야로 성립되어 있다. 각 학과는 복수전공분야(전수(專修)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문학과는 미술, 고고학, 문학, 음악, 철학, 윤리학, 종교의 전수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학과는 경제학, 경영학, 역사

학,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의 전수분야로 구성된다. 타학과(외국어학과, 교육학과, 국제관계학과)도 같다. 학생은 한 가지 학과를 골라서 입학하여, 최종적으로는 특정한 전수분야를 선택하여 학습한다. 이것은 미국형과 동일하고 특별한 것은 없다. 이 최종적인 전수분야의 선택에 다다를 때까지 학습지도로 리버럴아츠 교육의 특색이 채워져 있다. 특히 ICU의 학과구조는 투명막형이다. 즉 학습과정에 있어서 소속학과의 변경이 인정되고, 또 복수학과에 걸친 학습이 가능하다. ICU의 학습으로 는 위에 기술한 전공학습 외에 영어교육과 일반교육 및 보건체육이 있다. 리버럴아츠 교육의 목표는 전문직업교육이 목표가 되는 직접적인 지식, 기능의 습득과는 다르게 사고력과 판단력을 위한 일반적 지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학문적(academic) 능력(방법, 방책, 기술 등도 포함)을 체득시키는 일이 리버럴아츠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학문적 능력'이라는 것은 객관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Critical Thinking), 주제적 문제설정, 문제제기능력, 문제해결 사고능력, 논리구축을 위한 사고력과 자기표현의 사고능력 등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학문적 능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이 마주 보고, 공동으로 사물을 생각하고, 논리적인 사고 프로세스를 체험할 공간이 필요하다. 그 때 결과보다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중시하고, 학생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고과정을 거치고, 논리를 구성하는 것인가를 훈련하고, 말하는(話) 말이나 쓰는(書) 말을 사용하여 자기표현을 하는 과정을 단계

적으로 지도하고, 처음으로 학문적 능력을 몸에 익히는 것이다. 그러한 훈련을 ICU에서는 영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학생이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주체적으로 참가하게 되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 대학에서의 교육의 질의 차이를 실제로 체험시키고 학생참가형 수업형태를 취하면서, 리버럴아츠의 기초교육을 달성하게 된다. ICU의 ELP(English Language program)는 그러한 리버럴아츠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자인되어 있다. ICU의 ELP는 학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교육이고, 리버럴아츠의 공간을 준비하는 것이다. ICU는 국제성을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 실질은 일어와 영어 양국어에 의한 이중언어(bilingual)교육방침이다. 대학의 구성원은 언어나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교직원과 학생으로 성립되어 있다. 그들 구성원에 따라 캠퍼스라이프를 성립시키기 위한 공통언어가 일본어와 영어이다. 그리고 ICU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은 ELP라고 하지만, 그 목적은 학문적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이다. 그 의미는 영어운용능력을 대학 수준에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학문적인 방법에 필요한 기초적 학문적 기술(academic skill)을 훈련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LP의 핵심이 되어 있는 과목은 다음의 3개이다.

- 1) 독해와 논문방법(Academic Reading and Writing) : 1년차 필수
- 2) 청해와 영문구성법(Reading and Content Analyses) : 1년차 필수
- 3) 논문작성법(Theme Writing) : 1년차 필수

일본에서 교양(리버럴아츠)학부는 많은 오

해에 싸여 있다. 오해의 원인은 교양의 오해에 있다. 일본에 있는 교양의 계보는 구제(舊制) 고등학교에서 있는 교양주의에 정체되어 있다. 거기에 교양은 독서로 상징되어 있다. 따라서 그 교양은 서재의 교양이다. 한편 리버럴 아츠의 상징은 서양 고전주의이고, 그 이미지는 정적이다. 그러나 리버럴아츠라는 것은 원래 좀 더 동적인 개념이다. 리버럴아츠의 근원은 학문이다. 학문의 역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 즉 일반적인 교양 파이데이아(Paideia, 그리스어로 교육·학습의 의미)의 탐구에서 출발했다.

이 질문에 대해 ICU는 행동하는 리버럴아츠로 대답하고 있다.

그리고 ICU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표어에 행동하는 리버럴아츠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행동하는 리버럴아츠를 상징하는 것으로 '과학, 기술과 사회(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같은 과목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동하는 리버럴아츠를 상징하는 프로그램의 한 가지가 서비스러닝(service learning, 봉사학습)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 서비스러닝이라는 개념은 미국 대학에서 근래 왕성히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 서비스러닝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으로, 미국의 대학교육이 전문성이나 지식의 습득에 편중하고 있는 것에 비판적 개념으로 미국의 대학교육에 도입되었다.

서비스러닝이라는 것은 대학의 학습성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체험학습이다. 학생은 일정 기간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체험한다. 그 봉사활동으로 몇 가지의 지식습득 메커니즘이 포함되는 일이 요구된다. 그 활용의 장은 주로 NPO 등의 비영리단체로 학생은 비영리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대학에서의 학습성과를 사회생활에 연결하는 경험을 한다. 그 때

봉사에 대한 대가는 학생이 그 활동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ICU는 전형적인 리버럴아츠 대학을 지향하면서, 국제인양성을 위한 영어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대학과 사회를 연계시키는 봉사학습 등의 실시를 통하여 글로벌시대에 적합한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III. 문부과학성의 대학개혁 지원 프로그램

일본에서 대학관련 예산은 정책적 의도가 함께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국립대학 예산이나 사립대학을 위한 사학조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평등배분을 해 왔다. 그러던 상황에서 큰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문부과학성 장관의 이름을 딴 소위 토야마(遠山, Toyama)계획(plan) - 국립대학 재편·통합, 국립대학 법인화, 국·공·사립 톱30 육성 등 - 이 제시한 세 번째의 방안, 즉 대학을 제3자에 의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톱30 대학을 육성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하면서부터이다. 이를 위한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프로그램(우리나라의 BK 21에 해당)을 2002년부터 시작하고, 그 이듬해(2003) GP(Good Practice)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평가가 수반된 경쟁적 예산배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GP의 성격을 살펴보면 GP란 대학 개혁에 부응하는 '뛰어난(대체)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로 국제기관 등의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GP는 대학이 얼마나 특성(화)을 발휘하여 사회의 요구(needs)에 부응하는 인재양성기능을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대체로 GP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운영의 키워드를 갖고 있다.

첫째, 국공사립을 통한 경쟁적 환경

교육개혁의 참고가 되는 ‘뛰어난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데, 국·공·사립이라고 하는 틀에 구애받는 일 없이 널리 공모하여 신청한 대학들 중 계획이 뛰어난 10~20%를 선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각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개혁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즉 ‘경쟁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개혁에의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주어 서로 절차탁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제3자에 의한 공정한 심사

‘뛰어난 대처’를 적절하게 선정하기 위해서 ‘공정한 심사’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등으로부터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나 면접 심사 등으로 공표된 심사기준에 근거하고, 논문심사관(paper referee)의 전문적 의견도 감안해 공정한 제삼자 평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선정된 대학과 더불어 선정되지 않았던 대학들에게도 선정·탈락 이유를 첨부하여 대학에 알려주고 있다.

셋째, 적극적으로 대학사회에 정보제공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관점에

서 ‘뛰어난 프로그램’을 선정해 재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정된 ‘뛰어난 프로그램’을 모든 대학들의 공유재산으로 많은 대학들이 스스로의 교육개혁을 진행시키는 논의에 활용하기 위해 ‘뛰어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많은 대학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결하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GP는 3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육내용·방법에 주안점을 두는 ‘특색GP’로, 이는 특색 있는 대학(학부)교육 프로그램과 매력 있는 대학원교육 선도(initiative)프로그램과 대학원 교육개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째, 현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대학의 다양한 기능에 초점을 둔 ‘현대GP’로 이는 현대의 교육적 요구(needs) 대처프로그램과 국제화 추진, 그리고 사회인의 재교육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학생 지원프로그램 등으로 되어 있고 셋째,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직업인양성 추진에 역점을 둔 ‘전문직GP’로 이는 법과대학원과 자질 높은 교원양성 프로그램(전문직 대학원프로그램으로 2007년 통합)과 지역의료, 그리고 암 전문가 양성 추진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GP프로그램 외에 COE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계적 연구·교육거점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상기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정리하면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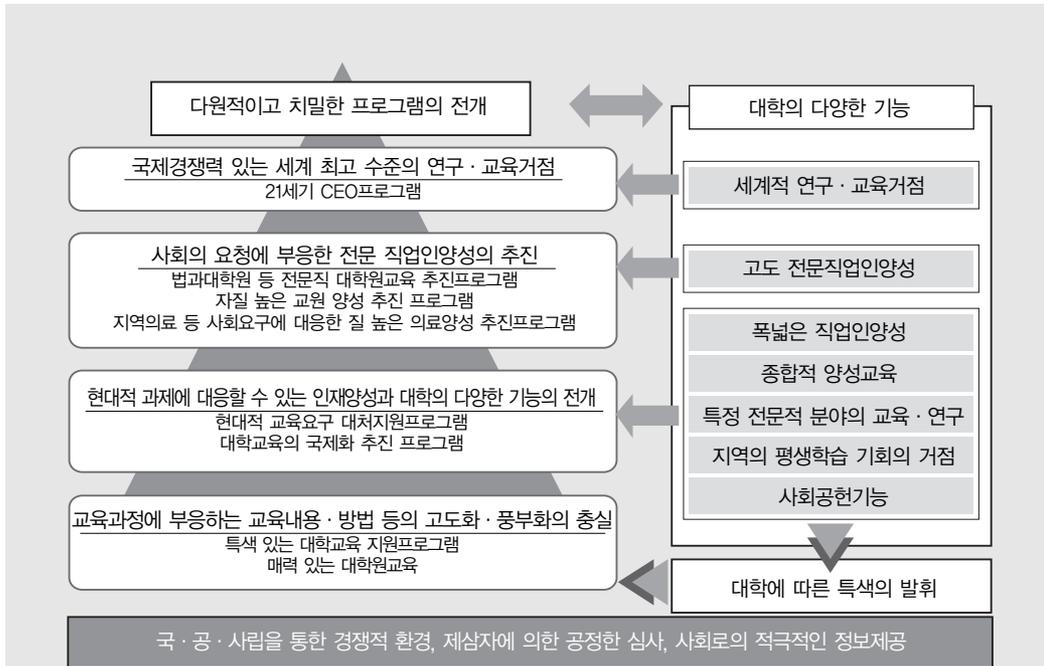
<표 2> 문부과학성의 대학교육개혁 지원프로그램

자료: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index.htm

각 대학들에 있어서 대학개혁이 한층 더 추진되도록,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경쟁적 환경하에서 특색 있는 뛰어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

국공사립대학을 통한 대학교육개혁의 지원

- 대학의 개성·특색에 대처한 교육의 충실·실질화의 추진 (2007년 : 602억 엔, 2006년 : 562억 엔)



1.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육내용·방법의 고도화·풍부화의 충실

- 특색 있는 대학교육 지원프로그램 (특색GP)
 - (2007년 : 31억 엔, 2006년 : 35억 엔)
 - 각 대학·단기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육의 개선에 이바지하고 더욱 충실하게 발전시키는 특색 있는 뛰어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함과 동시에, 널리 사회에 정보제공
- 대학원 교육개혁 지원프로그램【2007년 신규】
 - (2007년 : 35억 엔)
 - 산업계를 비롯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활약하는 고도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조직적·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 ‘매력 있는 대학원교육’ 선도(initiative)프로그램
 - (2007년 : 12억 엔, 2006년 : 42억 엔)
 - 현대사회의 새로운 요구(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창조성 풍부한 젊은 연구자의 양성기능 강화

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원에 있어서의 의욕적이고 독창적인 교육의 대처를 중점적으로 지원

2. 현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대학의 다양한 기능 전개

- 현대적 교육요구(needs)대처 지원프로그램 (현대GP)
 - (2007년 : 51억 엔, 2006년 : 46억 엔)
 - 각종 심의회로부터의 제언 등을 근거로 하여, 사회적 요청이 강한 정책과제에 대응한 대학·단기대학 등에 있어서의 뛰어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널리 사회에 정보제공
(공모주제(안) : 지역활성화, 환경교육, 지적 재산관련교육, 커리어교육, 이-러닝)
-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진프로그램
 - (2007년 : 18억 엔, 2006년 : 19억 엔)
 - 장기해외유학 지원 : 해외의 대학에 학생 등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해외 선진교육 연구실천 지원 : 교직원외 해외에

서의 교육연구활동을 지원

- 첨단적 국제제휴 지원(신규) : 해외의 복수대학으로 제휴하는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지원
- 전략적 국제제휴 지원 : 해외의 대학과 제휴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사회인의 재교육요구 대응교육 추진프로그램
【2007년신규】

(2007년 : 18억 엔)

- 각 대학의 교육연구자원을 활용해, 사회인의 재교육요구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한 학생 지원프로그램
【2007년신규】

(2007년 : 16억 엔)

-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뛰어난 종합적인 학생 지원프로그램을 지원

3.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직업인 양성의 추진

○전문직 대학원 등 교육 추진프로그램(전문직 GP)

(2007년 : 13억 엔, 2006년 : 25억 엔)

- 법조나 교원 등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고도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전문직 대학원 등에 있어서의 교육방법 · 내용의 충실 등을 도모하는 뛰어난 프로그램을 지원

※ 2006년도 실시 프로그램인 이하 2개 프로그램

을 발전적으로 통합

○법과대학원 등 전문직 대학원교육 추진프로그램
(2006년 : 16억 엔)

- 전문직 대학원에 있어서의 교육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직 대학원과 관계되는 업계나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각 분야의 인재요구(needs)에 적합한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대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자질이 높은 교원양성 추진프로그램

(2006년 : 9억 엔)

- 대학들에 있어서의 교원양성의 개선 · 충실의 추진이나, 대학원 단계에 있어서의 교원양성 · 현직교육기능의 각별한 충실 ·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들에 있어서의 교원양성이나 현직 교원의 충실 · 강화와 관련되는 특별히 뛰어난 개혁 지원

○지역의료 등 사회적 요구(needs)에 대응한 질 높은 의료인양성 추진프로그램

(2007년 : 13억 엔, 2006년 : 13억 엔)

- 지역의료 등 사회의 요구(needs)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질 높은 의료인양성프로그램을 지원

○암 전문가(Professional)양성플랜【2007년 신규】

(2007년 : 14억 엔)

- 암 치료의 담당자가 되는 고도의 지식 · 기술을 획득하는 전문 의사 등 암을 특성화한 의료인 양성의 프로그램을 지원

IV. 우리나라 대학에 주는 시사점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일본의 대학교육개혁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중앙교육심의회(대학분과)와 같은 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대학교육의 당면과제와 향후 전망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문부과학성이나 대학에서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교육혁신위나 대

교협 차원에서 이와 같은 진단과 전망을 하기 위한 논의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대학설치기준의 대강화 이후 교양학부의 폐지와 더불어 교양교육이 다소 침체되고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적 연계와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온 점 등을 본받아, 우리나라도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학부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학력저하시대에 전공의 충실화를 위하여 기초가 되는 교양교육의 재정립과 재구조화 작업이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로 대학개혁을 지원하여 주는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일본과 같이 보다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needs)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보완이 요망된다.

참고문헌

유용식(2002). “일본의 대학 교육과정 개혁”, *비교교육연구*, 제12권 2호.

有本章(2003). *大學のカリキュラム改革*, 玉川大學出版部.

絹川正吉(2006). *大學教育の思想-學士課程教育のデザイン*, 東信堂.

http://www.mext.go.jp/a_menu/koutou/kaikaku/index.htm

현경석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직을 맡고 있다. 역서로는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대학이사회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공역)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일본 대학의 교수개발(FD) 운영사례와 시사점” 등 다수가 있다.